

이상돈의 '바른 소리'



갈 길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아예 무시하고 있고, 야권에 우호적인 정치평론기도 새정치연합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 대표의 구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안·박 공동체제'는 현재의 최고위원회를 대체한다는 말인데, 당장 몇몇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 대표는 '문·안·박 연대'의 근거로서 세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안철수·문재인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박근혜의 지지도보다 항상 높았지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데서 보듯이 지지도 단순 합산은 큰 의미가 없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수 없는 문재인 대표가 옛것에 광주를 찾아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어 놓았다. 문 대표는 '문재인·안철수·박원순'으로 구성된 희망스 크립을 구성해서 당 대표 권한을 공유하는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문·안·박 연대'의 근거로서 세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안철수·문재인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면 박근혜의 지지도보다 항상 높았지만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데서 보듯이 지지도 단순 합산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솔직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두 차례 선거는 친노 지도부가 주도해서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주류 세력의 패배였으며, 통진당과의 연대로 치른 선거였기에 진보집권 플랜의 실패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솔직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두 차례 선거는 친노 지도부가 주도해서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주류 세력의 패배였으며, 통진당과의 연대로 치른 선거였기에 진보집권 플랜의 실패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솔직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두 차례 선거는 친노 지도부가 주도해서 치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주류 세력의 패배였으며, 통진당과의 연대로 치른 선거였기에 진보집권 플랜의 실패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 의원이 한때 가졌던 정치적 자신은 공동대표가 되어 치른 지방선거와 재보선 과정을 통해 많이 소진되어 버렸다.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표를 지지했을 통진당 지지층이 현재의 해산 판결 후에 통진당과 선을 그은 새정치연합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오늘날 새정치연합이 필요로 하는 호남 유권자와 20~30대 유권자는 박근혜 정부의 극우 편향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과격한 운동권 행태도 좋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종교칼럼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영철 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자 자매님의 "김영철 신부님 오셨다" 라는 그 한마디에 다들 2층에서 뛰어내려왔 습니다. 아! 그런데 모두 아는 얼굴들, 너 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한눈에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한 목소리에 나를 알아보았다고 하는 게 맞 는 표현일 겁니다.

서로 나를 만지려 들고 서로 먼저 말을 걸러 하며 즐거운 소동, 행복한 소동이 일 어났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에입니다. 16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당시 나보다 젊었던 친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중년의 모습이 됐고, 나이가 좀 들었던 사람들은 장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 니다.

지난 8월 어느 날, 한 신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 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신부님이 알아서 좋은 일에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돈으로 장애인 시설 몇 군데 쌀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다시 좋은 일을 불러오나 봅니다. 그곳에서 뜻밖 에 무척 반가운 이들을 만나 게 됐습니다.

누군가 벽에 '공' 하고 부딪칠 때 "이 양반이 눈에 보이는 게 없아보네. 똑바로 가자" 하면 "아, 내가 봉사자야요"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 습니다.

누군가 벽에 '공' 하고 부딪칠 때 "이 양반이 눈에 보이는 게 없아보네. 똑바로 가자" 하면 "아, 내가 봉사자야요"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 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 비록 작으나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 도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은 내 안 에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내게 선물로 주어줍니다. 그런 데도 정작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정으로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는 신자와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해 잊을 만도 한데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고 환대해준 시각장애인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저마다 보는 것을 달아간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기고

안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

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는 건조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근로자 12명이 다쳤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언론, 자정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안전시스템 강화'를 부르짖는다.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정부부처 개편 등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시스템 개선을 주장한다.

오랜 현장경험을 가진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인 '최소한한 법 개정과 제도개편'은 75% 설비구축 등 기술적 관리감독 강화는 10%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는 있지만, 나머지 15%는 안전관련 제도 등을 아무리

배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규제 방식에서 자율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나머지 15%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방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잘못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혹 있다고 해도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했다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 때, 반대편의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진입한다고 해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천천히 움직인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살인확정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자신의 생명보다는 세월호에 탑승한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와 청춘의 꿈을 조금만 배려했다면, 과연 혼자서 배를 탈출할 수가 있었을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국민 모두가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

社說

전윤철 비엔날레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 전윤철 이사장이 천정배 의원이 창당하는 야권 신당의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옛것제 천 의원이 주도의 야권 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목포 출신인 전 이사장은 1966년 공직에 입문해 공경거래위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감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이사장은 중양과의 인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중국 관련 유적 관광객 유치 활용을

중국인들은 유난히 인연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이 넓고 사람 또한 많다 보니 일단 동침감을 느끼면 매우 반가워한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광주·전남은 중국과 가깝고 천혜의 풍광을 지녔음에도 중국인들의 방문은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제주에 비해 숙박시설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중국의 인물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의미 있는 큰 유적이 꽤 분포돼 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우리의 '노란 리본'처럼 수십, 수백만 명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또 다른 상징이 태어났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장 폴리앙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제작한 이 도안은 에펠탑과 원을 결합한 형태로, '파리에 평화라'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들 가량이나 사료가 남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량이나 사료가 남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가량이나 사료가 남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無等鼓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니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82일이 지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란 리본을 만나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라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민신문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